

##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

안녕하십니까, 천 미녀 프로입니다.

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그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

지난 4년간 이사로 보낸 시간은 협회와 회원들을 보다 깊이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. 솔직히 수많은 안건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늘 만족스러운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허나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두 한 마음으로 협회를 위하고 회원을 위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 한 순간 한 순간이 제겐 보람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진정으로 협회가 발전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.

임기의 끝이 다가오면서, 마음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.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회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얻고자 하는 열정이 제 마음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1년 2월 17일

성 명 : 천 미 녀 (인)

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귀중